

칠요력(七耀歴) 1206, 6월의 어느 날--
에레보니아 제국, 서부 라마르주.
해상도시 올디스로부터 120셀주 정도 떨어진 지점.



구(舊)귀족연합군 본부
<쥬노 해상 요새>



귀족 연합군 병사 : 우, 우아앗...!!
귀족 연합군 병사 : 사, 살려줘! 양전히 행복 할 테니까...
엽병 : 흥, 싱겁구만...
엽병 : 좌익 B블록을 제압! 이제부터 요격태세로 전환한다!



- ??? : 망국(亡國)의 사병(死兵)들—
 훌륭히 역할을 해주었군요.
 ??? : 무대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차례로군요.
 ??? : 다가오는 적은 다수, 예상과는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실력자들…
 ??? : 최후의 “시험”에 타당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하도록 하죠.



- 자주 머리색의 여기서 : 예스, 마스터.
 붉은 머리색의 여기서 : 결사 최강이라고 칭송을 받는 <철기대(鐵機隊)>
 의 용맹함을.
 밤나무 머리색의 여기서 : 불손한 도전자놈들에게 충분히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저, 저것은…!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그 “하얀 기신”인 건가…!?
 은발의 소녀 : 예전 갈레리아 요새를 소멸시킨 “타입 알파(α)”의 후계기, 같네요.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보건데 당장에 움직일 기색은 없는 듯한데요…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흥, 품 잡고 있을 동안에
 고철덩이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지.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젓빛 기사”양반보다 먼저 말이지.
 은발의 소녀 : 그건---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우리들 B팀의 역할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저쪽에서 몸소 주요전력을 도맡아 준다면야 그야말로 금상첨화지.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비장의 카드”도 있어--- 그 잘난 척 품만 잡는 녀석에게
 한방 먹여줄 찬스잖아?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품만 잡다니... 뭐, 일단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그렇지만 분명 언제나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할까...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아아, 정말! 생각해보니 왠지 화가 나는 걸...!
 은발의 소녀 : 뭐, 다소는 동의하네요.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후우...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우후후, 어쩔 수가 없어요.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때때론 엄하게 때때론 상냥하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한 배려와 신사다운 면모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는 무뎅뎅함.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자로서 가슴이 찡하고 반응하게 되니까요.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에, 나는 아니거든!?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크크, 손쓸 방도가 없는 타고난 바람둥이란 건가.
 은발의 소녀 : 과연. 듣고 보니 그러네요.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신랄한 평가로군...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
 핑크머리색의 여자아이 : 또야...!!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해에, 난리로구만.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발사 간격이 짧아지고 있네요.
 은발의 소녀 : 아마도 저쪽의 전황도 클라이막스에 치달고 있는 게 아닐는지.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시간이 없어...갈 길을 서두르자!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응--! <VII반> B팀, 공약을 재개하자--!!



Check Point !!

전통의 프롤로그 스테이지.
 맵 이동 방법, 적과의 조우, 전투의 진행 등 간단히 진행되는 구간.
 맵의 구조도 단순하며 일방통행이라 어려움이 없다.
 회복 장치 다음엔 이벤트 전투가 발생하니 미리 저장을 추천.



Side Event !!

시작점 근처의 문 조사 시.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되돌아갈 시간은 없어--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응, 갈 길을 서두르자!!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쿛...!!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크기가...!?
 은발의 소녀 : <철기대>의 전용기... 최신에 기체인 듯하네요.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훗,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요술상자라도 되는 거냐...!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훗, 요술상자에서 나오기엔 꽤나 거대한 장난감인 것 같지만요.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톨즈 제2 사관학교, 특수과 <VII반> 지금부터 목표를 격파한다---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전술 링크 ON! 모두, 기합을 넣고 임하자!!
 일동 : 오오!!



Event Battle!!

슬레이프닐 F1(スレイプニルフ1)

스레이프닐 F1 Lv 37 HP 24662 / 24662 EXP 419 入手セビス 15 13 17 13 11 11 11 34 入手アイテム 封技の刃II 破剣の牙II 結社の戦術人形兵器。 鉄機隊用に調整された 最新鋭の機体で、頑強な盾を構え カウンター攻撃を仕掛ける。		体勢崩し有効度 斬*** 突* 射** 剛*** 魔法属性有効率 炎 100 氷 160 雷 120 風 80 状態変化有効率 毒 0 気絶 10 封技 100 睡眠 0 封魔 100 硬直 0 睡眠 20 即死 10 麻痺 0 沈黙 10 炎傷 10 遅延 10 凍結 20 沈黙 10 石化 10 重力落下 50
--	---	---

결사의 전투오토마타. 튜토리얼 전투의 중간 보스 격이지만 외모와 달리 약한 편.
 수속성 아츠에 약하며 행동속도 감소 등의 상태이상도 잘 걸리니 적극 활용하자.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뭐야...!?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쿵, 자폭인가...!?



은발의 소녀 : 물러나주세요---
은발의 소녀 : 클라우=솔라스...!!
철흑의 기계인형 : АиэлФя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후우, 덕분에 살았어.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후아~... 고마워, 알, 쿠~!!
은발의 소녀 : 천만에요. 하지만 쿠라는 이름은...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훗, 어떻게든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ㅋㅋ, 요술은 끝나도 그냥 보내진 않겠다는 건가?
여성의 목소리 : --후후. 우리들의 기척을 알아차릴 줄이야.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철기대의...!!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강의(剛毅)>와 <마궁(魔弓)>인가...!!



자주 머리의 여기사 : 후후훗, 또 만났네. <VII반>의 아이들.
 자주 머리의 여기사 : 이런 곳까지 침입했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말야.
 붉은 머리의 여기사 : 잿빛 기사 가호 없이 이 사자를 어떻게 헤쳐 나갈 셈이지?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흥, 실컷 지껄여 보시지.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실력차는 명백하지만...물러 설 수만은 없어요.
 붉은 머리의 여기사 : 후후, 그 마음가짐만은 좋다. 그러면 전력으로 응해줄 수밖에.
 자주 머리의 여기사 : 주력 부대의 도착까지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렴?



Event Battle!!

아이네스(アイネス), 엔네아(エンネア)



아이네스		체포율 新*** 実*** 射*** 剛***	
Lv	38	魔法属性有効率	
HP	21751 / 42220	炎	100
EXP	857	氷	100
入手セビス		雷	100
炎	0	風	100
氷	0	毒	100
雷	0	聖	0
風	0	死	0
入手アイテム		状態変化有効率	
使徒第七柱《鋼の聖女》直属の《鉄樹隊》隊士補佐の戦乙女。巨大なハルバートで戦場を穿ち敵陣を叩き割る。		毒	20
		気絶	0
		狂封技	2
		狂封乱	0
		狂封縛	5
		狂即死	0
		狂催眠	10
		狂夢歩	10
		狂拘束	10
		狂遅延	5
		狂凍結	10
		狂消滅	0
		狂石化	0
		狂重力場下	20

キャラ回転 <http://5ugu.history.com/>



아이네스		체포율 新*** 実*** 射*** 剛***	
Lv	38	魔法属性有効率	
HP	21751 / 42220	炎	100
EXP	857	氷	100
入手セビス		雷	100
炎	0	風	100
氷	0	毒	100
雷	0	聖	0
風	0	死	0
入手アイテム		状態変化有効率	
使徒第七柱《鋼の聖女》直属の《鉄樹隊》隊士補佐の戦乙女。巨大なハルバートで戦場を穿ち敵陣を叩き割る。		毒	20
		気絶	0
		狂封技	2
		狂封乱	0
		狂封縛	5
		狂即死	0
		狂催眠	10
		狂夢歩	10
		狂拘束	10
		狂遅延	5
		狂凍結	10
		狂消滅	0
		狂石化	0
		狂重力場下	20

キャラ回転 <http://5ugu.history.com/>

결사의 집행자 아리안 로드를 떠 받드는 <철기대>소속의 기사들.
 스토리 상의 꽤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 강하지만 이번 전투에 한해선 이벤트 수준의 보스전. S 크래프트 연사로 브레이크를 발생시키면 쉽게 클리어 가능.
 두명의 HP가 30퍼센트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전투 종료.

붉은 머리의 여기사 : 호오, 훌륭하군.
 자주 머리의 여기사 :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즐겁게 해주는 걸.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첫... 여유부리기는.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아직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편이 좋겠어.
 여성의 목소리 : 나참, 어째서 이런 곳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야!?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 적 주력을 요격하기 전에 이런 곳에서 농땡이나 부리고 있다니…!

자주 머리의 여기사 : 어머니, 꽤 빨랐네요.

붉은 머리의 여기사 : 흠, 여흥은 여기까지인가.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철기대>의 지휘기사(筆頭隊士)…

은발의 소녀 : <신속(神速)>이군요. …성가시게 됐네요.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欸, 얼빡한 것 치곤 꽤나 빠른 상대였더랬지…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 누, 누가 얼빡하다고!? 햇병아리 주제에 건방지게…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 아이네스, 엔네아!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 여긴 “성광진(聖光陣)”으로 단숨에 결판을 내야겠어!

붉은 머리의 여기사 : 알겠다.

자주 머리의 여기사 : 후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그 때의.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필살기란 건가… 흠, 어디 해보자고!!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 자, 각오해라----

청년의 목소리 : 그럴겐 안돼---!!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欸…!?

자주 머리의 여기사 : 어머니 …!

붉은 머리의 여기사 : 예상보다도 빨랐군…!

큰 키의 청년 : ---시간에는 맞추었군.

붉은 자주빛 머리의 여성 : 자자, 실례 좀 할게♥

은발의 소녀 : 아…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훗… 나이스타이밍이라고 해야 하나요.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쳇… 쓸데없는 짓을.

검은 머리색의 청년 : …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교관님…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어, 어쩌서… 좌익(左翼)쪽으로 갔었던 거 아니었나요!?

파란 머리의 소녀 : 에헤헤, 왠지 이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말야.

금발의 청년 : 훗, 역시 난공불락이라 칭송받는 성채요새라고 해야 하나.

검은 머리의 청년 : 여기는 우리들에게 맡겨줘.

검은 머리의 청년 : 피차 이제 한결을 남았어. 무사히 천수각(天守閣)에서 합류하도록 하자.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欸… 알겠습니다!

은발의 소녀 : 잘 부탁드립니다…!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아아 정말…!! 교관님들도 몸조심하세요!!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欸,欸… 좋아. 불에 뛰어드는 별레처럼.

밤나무 머리의 여기사 : 지고의 존재에 도전하려고 하는 오만불손함.

이 자리에서 베어버려 주도록 하지.

밤나무 머리의 여기서 : 준비는 됐겠지, 구(舊)VII반!! <젯빛 기사>린 슈바르처!!



3개월 전--



제도 헤임달, 중앙역 경유의
라마르 본선 여객 화물 열차---

아나운스 : 다음 정차역은 리브스, 리브스 역입니다.
아나운스 : 화물반출을 위해 한동안 정차를 하겠습니다-----

특별 와물 차량(Special Freight Car)



기신 발리마르 : 흥---슬슬 도착인가?
 검은 머리의 청년 : ... 그래.
 린 : 요 근래 1개월간, 가렐리아 요새에 계속 방치해뒀으니까 말야...
 린 : 비좁은 곳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기신 발리마르 : 후후... 이것도 필요한 절차겠지.
 기신 발리마르 : 휴식상태에서 오는 나의 부하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아.
 기신 발리마르 : 갖가지 일들에 얽매여있는 너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바라던 바다.
 린 : 하하, 정말... 이젠 인간이랑 별반 차이가 없군.
 린 : 고마워, 발리마르.
 기신 발리마르 : 천만에, 라고 해주지.



금발의 소녀 : 어디보자... 왓, 제대로 있어요!

붉은 머리의 남자 : 후우, 이런, 이런.
 붉은 머리의 남자 : 뭐를 경계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물반입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할 정도라니.
 금발의 소녀 : 옛...?
 붉은 머리의 남자 : 뭐야...?
 금발의 소녀 : ...굉장해...
 붉은 머리의 남자 : 소문으로는 들긴 했지만...
 린 : (...이 두 사람은...)
 붉은 머리의 남자 : 전장 7 아주의 최신행 인형 병기...
 붉은 머리의 남자 : <기갑병>이라고 했던가?
 금발의 소녀 : 아니요, 틀려요.
 금발의 소녀 : <젯빛 기사>---이죠?
 붉은 머리의 남자 : 그 말은--
 린 : 응... 그 말대로야.
 린 : 일반인, 하물며 외국인이 알고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말야.
 금발의 소녀 : 에헤헤... 이런 것에 꽤나 흥미가 있는 편이라서요.
 붉은 머리의 남자 : 어디가 "꽤나"라는 거야... 일가족 전부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면서.
 붉은 머리의 남자 : 그것보다 용케 우리들이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렸군?
 린 : 아주 약간, 억양의 차이 덕분에.
 린 : 남부 쪽--- 리벨 부근 아닌가요?
 금발의 소녀 : 아...
 붉은 머리의 남자 : 크크, 정답이야.
 붉은 머리의 남자 : 그렇군-- 네가 <젯빛 기사>로군?
 린 : ...네. 정말 자세히 알고 있군요.
 금발의 소녀 : 옛, 저기, 저기...



청년의 목소리 : 슈바르처-, 여기 있어?
 패트릭 : 이제 곧 5분후면 도착이야. 준비 쪽은--
 패트릭 : 어라...?
 린 : 문제없어. 언제든지 내릴 수 있을 거 같아.
 붉은 머리의 남자 : 방해를 했군. 우리도 슬슬 준비하자.
 금발의 소녀 : 아, 네. ... 그럼 실례했습니다!
 패트릭 : 누구야...? 일반인은 아닌 거 같은데.
 린 : 응, 외국인에... 그들도 다음 역에 내리는 모양이야.
 린 : 어쩌면 내 직장에 관련된 사람일 지도 모르겠어.
 패트릭 : ...과연.
 패트릭 : 여러모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듯하던데...

아나운스 : 리브스역, 리브스역입니다. 화물반출을 하기 위해서 한동안 정차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패트릭 : 훗...여전한 모양이군. <젯빛 기사>님의 인기는.

린 : 후우, 올해 들어서는 한동안 양전히 있었는데 말이지...

린 : 잡지사의 취재 같은 것도 모두 사양을 했었고.



패트릭 : 그게 한층 더 억측과 미화를 가속시켜 젊은 영웅의 이상화에
박차를 가했던 거로군.

패트릭 : 앞서 <북방전역>에 있어서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활약상이
소문을 타고 퍼졌던 모양이고.

린 :

패트릭 : ...미안. 실언을 했군.

린 : 아니야, 괜찮아.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린 : 고마워, 패트릭.

린 : 요 1년 동안-- 아니 2년간. 함께 절차탁마해 주어서.

패트릭 : 슈바르쳐...

패트릭 : 훗, 금지 높은 <1반> 소속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패트릭 : 출석일수는 간당간당, 언제나 말도 안 되는 문젯거리를 도맡으면서도--

패트릭 : 혼자서 애쓰며 완수해내는 요령이 부족한 라이벌에게

최소한의 신경을 써주는 정도로 말이지.

린 : 패트릭...

린 : 너야말로 해상도시에서 후작가문의 대행역을 맡기로 했다고 했던가...

린 : 큰일일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길 바라.

패트릭 : 훗, 알바레아 녀석에게 뒤흠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지.

패트릭 : 너야말로 말이 많은 직장에서 모쪼록 애쓰며 힘내도록 하라고.

패트릭 : 그리고 가까운 편이니 엘리제 씨와는 연락도 빼먹지는 말도록 해.

패트릭 : 하는 김에 나에 대한 것도 같이---

린 : 고마워, 패트릭. 하지만 그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패트릭 : 크흑...

린 : 건강해-- 여유되면 나중에 또 보자!

패트릭 : 응, 그래.

패트릭 : 아, 맞아...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패트릭 : 1년 전에 나누었다고 하던 너희들 <VII반>의 약속---

패트릭 :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

린 : 아...

린 : ---응. 물론이지...!



서장. 봄은 또다시



린 : 헤에...

근교도시 리브스(近郊都市リーブス)



린 : (제도 서부 외곽의 도시... 지금까지 내렸던 적은 한번도 없었군.)

린 : (트리스타랑 비슷한 크기인가... 라이노의 꽃도 피어 있는 듯하네.)
 린 : (...트리스타랑, 사관학교라.)
 린 : (현역으로 복귀명령받은 학원장님도 그렇지만... 교관님들이나 후배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린 : (설마 일이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
 린 : ... 저게 그건가.
 린 : 확실히 완공이 된지 얼마 안 된 시설인 모양이군.
 린 : 발리마르는 경지 내의 격납고로 운반되어진 모양인데...
 ??? : 린...?
 린 : 옛---
 린 : ...



자그만 몸집의 여성 : 아하핫! 역시 린이 맞네...!
 자그만 몸집의 여성 : 와아 ... 잡지 같은 걸로 보긴 했지만 정말로 어른스러워졌네!
 자그만 몸집의 여성 : 키도 꽤 큰 거 아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야~!
 린 : ...토와, 회장님...?
 자그만 몸집의 여성 : 아, 설마 나도 조금은 알아보기 어려웠나?
 토와 : 에헤헤, 키는 전혀 크진 않았지만 좀더 능력 있는 여성성이 한층 더해졌다던가...
 토와 : 그, 그것도 아니면 조금은 스타일이 좋아졌다던가 해서--
 린 : ---아니, 그것보다는!
 토와 : 응...?
 린 : 그게, 너무 오래간만이랄까...꽤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참에 생각지도 못하게 만난 것도 놀랍지만.
 린 : ... 어째서 회장이 그런 복장으로 제 일터가 있는 마을에 있는 거죠?!
 린 : 하아... 설마 회장도 같은 직장이었다니.
 토와 : 후훗, 미안해. 나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토와 : 그래서 린도 미리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린 : 아니요, 졸업 전후로 해서 여러모로 문젯거리가 생기는 바람에요...
 린 :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토와 : ...응, 물론 들었어.
 토와 : 내가 이 도시에 온 것도 그게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토와 : 린이 나와 같은 일을 선택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깜짝선물이었지만 말야.
 린 : 회장님...
 토와 : 새삼스럽게 됐지만-- 린, 졸업을 축하해.
 토와 : 아마도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나 이외에도 잔뜩 있겠지만.
 토와 : 이 정도는 새치기해도 괜찮겠지.
 린 :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린 : 아니, 이젠 회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앞으로의 일도 있고.

토와 : 아하하, 그럴것네. [선배]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토와 : 린에게 “화장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마음에 들어서 약간 아까운 기분도 들지만,
 린 : 으...(변함이 없네, 화장은)
 린 : 그리고 보니... 선배는 앞서서 부임을 했다고 했었죠?
 린 : 새로운 “직장” ... 실제론 어떤 느낌인가요?
 토와 : 응... 린도 여기를 선택했을 때에 주변에서 여러 얘기를 들었을 거야.
 토와 : 분명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직장”이 될거야.
 린 : 그렇군요... 물론 각오는 하고 있긴 했지만.
 린 : “동료”쪽은 벌써 전부 만났나요?
 토와 : 응, 이미 인사를 하고 남은 것은 린뿐이야.
 토와 : 이제 곧 소개하게 되겠지만... 저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해?
 린 : ... 왜인지 위가 뜨끔뜨끔 아파올듯한데요.
 토와 : 꽤, 괜찮아, 괜찮아! 나 역시 마찬가지니까!
 토와 : 같은 툴즈 사관학교 졸업생으로써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면 돼!
 린 : 후우... 알겠습니다.
 린 : ---아, 저게.
 린 : ... 건물 디자인은 달라도 똑같은 <뿔 달린 사자 문장>인가요.
 토와 : 응, 우리들의 새로운 “직장”의 정문...



토와 : ---어서와, 린.
 토와 : 이곳 리브스에 새롭게 발족된 <툴즈 사관 학교 제2 분교>에!!

- 툴즈 제2분교, 본교사 내의 군사회의실 -

금발의 청년 : --잘 와주었다. 린 슈바르처군.
 미하일 소령 : 철도헌병대 소속 미하일 어빙이다.
 미하일 소령 : 출장이란 형태이지만 이 분교의 주임교관을 맡을 예정이지.
 린 : 아...
 붉은 머리의 청년 : 하하, 설마 이런 곳에서 소문의 인물을 보게 될 줄은.
 란돌프 : 란돌프 울란드. 제국군 크로스벨 방면 부대로부터의 출장이야.
 란돌프 : 네 소문은 여기저기서 들었어. 모쪼록 적당하게 잘 지내보자구.
 린 :
 토와 : ... 린.
 린 : 린 슈바르처...
 린 : 이번 봄부터 툴즈 사관 학원의 <분교>를 막 졸업한 신참자입니다.
 린 : 잘 부탁드립니다. 미하일 소령님. 란돌프 중위님도.
 미하일 소령 : 그래, 우리야말로.

미하일 소령 : 위용 높은 <젯빛 기사>--- 와 함께 일하게 되었으니 영광이지.
미하일 소령 : 하지만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기신>을 타고 다니는 영웅적 행위가 아니야.
미하일 소령 : 교관으로써의 적성과 장래성, 그것을 갖추었는지 확실하게 판단하도록 하지.



린 : ...명심하겠습니다.
린 : (철도헌병대(TMP)... 정규군을 뛰어넘는 엘리트 부대.)
린 : (설마 그곳의 사관 클래스가 파견이 되어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걸.)
린 : (...계다가...)
란돌프 : 하하, 그 표정이면 여러모로 알고 있는 모양이군?
란돌프 : 정보국의 파일 서류 쪽을 열람이라도 한 거야?



린 : 네... 부정은 않겠습니다.
린 : 아무래도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나온 모양이군요.
란돌프 : 하하... 뭐, 아무리 그래도 너 정도의 이유는 아니지만 말야.

토와 : 아, 아무튼 이걸로 <교관>들은 전원 모이게 됐네요!
 토와 : 소령님, 란돌프 교관도 모쪼록 잘 부탁드려요!
 미하일 소령 : 음, 자네에겐 두말 않고 기대를 하도록 하지.
 미하일 소령 : 졸업 당시 철도헌병대의 권유를 건어찬 의미도 담아서 말이야.
 토와 : 아, 아하하... 알고 계셨나요.
 란돌프 : 헤에, 외모완 다르게 꽤나 우수한 모양이네.
 란돌프 : 월반을 한 모양인데 17살 정도 되려나?
 토와 : ...저기... 21살인데요.
 란돌프 : 에, 정말로? 그럼 나랑 3살차이 밖엔...
 린 : 교관이 4명... 예상대로 적은 편이네요.
 린 : 이 멤버로 학과 내 모든 커리큘럼을 담당하는 건가요?
 미하일 소령 : 그래, 학생 수도 적으니 어떻게든 하나갈 수밖에 없겠지.
 미하일 소령 : 평상시의 실내수업, 야외 훈련, 그 이외에도 갖가지의 업무도 해야 될 거야.
 미하일 소령 : ...뭐, 특별고문이나 분교장님에게도 일부분은 도움을 받을 생각이지만.
 린 : 특별고문...? 그런 사람도 있는 건가요.
 린 : 게다가 분교장님에게도... 대체 어떤 분이시죠?
 미하일 소령 : 그게...
 란돌프 : 아니, 뭐랄까... 제국은 참 넓다라고 해야할지.
 란돌프 : 설마 저 정도로 강렬한 인상의 인간이 세상엔 존재한다니.
 토와 : 아, 아하하... 저기, 너무 놀라지마?
 토와 : 실은 두 사람 다 린과 면식이 있는 분들인데--
 여성의 목소리 : ---후후, 기다리게 했군.
 미하일 소령 : ...흐음...
 란돌프 : 이런, 호랑이도 제 말하면.
 린 : ...아...
 토와 : 에, 저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의의 노인 : 흥... 뭘 얼빠진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게냐.
 슈미트 박사 : 그 내란 이후로 간만이군. 내 얼굴도 기억 못하는 건가?
 슈미트 박사 : 뭐 나는 아무래도 좋지만.
 린 : 아, 아니요... 오래간만입니다, 슈미트 박사님.
 린 : 발리마르의 태도 제작 건(件)-- 그 때는 정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슈미트 박사 : 감사인사 따윈 됐다고 했을텐데.
 슈미트 박사 : ---특별 고문이란 직책이지만 나는 내 자신의 연구 외엔 전혀 흥미가 없어.
 슈미트 박사 : 모쪼록 내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할 거야. 슈바르처-, 아니 <재(灰)의 기동자(起動者)>.
 린 : ...으...
 미하일 소령 : ...하아...

란돌프 : (...50년 전에 도력기(오브먼트)를 발명한 엡스타인 박사의 세 제자 중의 한 명...)
 란돌프 : (진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
 토와 : (아, 아하하... 본인이 틀림없을 거예요.)
 린 : ...과연, 제가 채용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의 사정이 얽혀 있는 듯하군요.
 린 : 설마... 당신까지 이곳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은발의 여성 : 후후... 반년만이로군, 슈바르처-.
 은발의 여성 : 새삼스럽지만 모처럼 교관이 되는 자네들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내 소개를 하도록 하지.
 오렐리아 분교장 : 1년 반 전의 내전에서 귀족연합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패전군의 우두머리--
 오렐리아 분교장 : 그리고 반년 전의 <북방전역>에서 노잔브리야 병합을 주도했던 자.
 오렐리아 분교장 : 오렐리아 르겐 -- 앞으로는 <트즈 제2분교>의 분교장을 맡도록 하지.
 린 : 흑...
 토와 : ...린...
 란돌프 : 과연...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란돌프 : 하하, 철도헌병대의 소령님께서 파견되는 것도 당연한 걸지도?
 미하일 소령 : 흠...
 미하일 소령 : --분교장님. 솔솔 정각입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렐리아 분교장 : 음, 시작하도록 하지.
 오렐리아 분교장 : 허셀. 병아리들을 운동장에 소집하도록.
 토와 : 아, 네. --린, 나중에 봐.
 슈밋트 박사 : 흠...
 란돌프 : 자, 그럼. 어떤 면면들이 모여있을 까나.
 미하일 소령 : 슈바르처. 자네도 늦지 않도록 해.
 린 : 저기...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지금부터 제2분교의 신입생전원의 입학식 겸 인사가 있다.
 린 : 그, 그랬나요!? 전 아무 말도--
 오렐리아 분교장 : 크크, 너에겐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날짜와 시각만 지정했으니 당연하지.
 오렐리아 분교장 : 그 외에는 반 지정과 담당 학생과의 미팅도 있다.
 오렐리아 분교장 : <젯빛 기사>의 위용. 모쪼록 병아리들에게 보여주도록 해라.
 린 : (힘들고 고생스러운 "직장"... 과장이고 뭐고 그 말 그대로군.)
 린 : (--똥, 똥어. 일단, 이거라도 써 둘까.)



남자학생 1 : 저, 저 여사는...!?
 여자학생 1 : 설마... <황금 나찰>...?
 남자학생 2 : 게, 게다가 저 검은 머리의 인물은...
 여자학생 2 : 옛... 그 유명한...!
 금발의 소녀 : 아, 그 때 봤던...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크콧... 진짜냐?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훗... 예상외, 네요.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젯빛 기사>...
 핑크 머리의 여자 아이 : ...말도 안돼...
 은발의 소녀 : ...
 린 : (뭣...!?)
 도와 : (어라, 저 아이는...)
 미하일 소령 : 조용히! 허가 없이 입을 열지 마라!

미하일 소령 : ---지금부터 톨즈 사관 학원, <제 2 분교>의 입학식을 거행한다!
 미하일 소령 : 약식으로 치루기에 제식은 생략! 각 반의 지정 결과를 발표 하겠다!
 미하일 소령 : 우선은 <VIII반 전술과>! 담당 교관은 란돌프 올란드!
 란돌프 : 그럼. 호명된 녀석은 내 앞으로 와라.
 란돌프 : 제시카, 웨인, 시드니, 마야.
 란돌프 : 그리고 애쉬, 프레디, 구스타프, 레오노라 이상 8명이다.
 금자색 머리의 남자아이 : 흠...
 미하일 소령 : 다음은 <IX반 주계과>! 담당 교관은 토와 허셀!
 토와 : 음, 이름만 부를 테니 잘 들어? 샌디, 카이리, 티타.
 토와 : 루이세, 타치아나, 발레리, 유제, 파블로, 스타크. 이상 9명이야.
 민트 머리색의 여자 아이 : ...후훗...
 린 : (VII반에 IX반... <전술과> 그리고 <주계과>인가.)
 린 : (그러면 남는 것은...)
 미하일 소령 : 조용하도록! 지금부터 본 분교를 책임지는 분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다!
 미하일 소령 : ---분교장님, 하시죠.
 오렐리아 분교장 : 음.
 오렐리아 분교장 : ---<제2분교>의 분교장이 된 오렐리아 르권이다.
 오렐리아 분교장 : 외국인도 있기에 이 이름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제 각각이겠지만 한 마디만은 확실히 해둘 게 있다.



오렐리아 분교장 : ---어렵듯이 느끼고 있겠지만 이 제2 분교는 “버리는 말”이다.
 토와 : 에엣...!?
 슈밋트 박사 : 흠음...?
 오렐리아 분교장 : 올해부터 황태자를 맞이하여 철저히 개혁되는 <톨즈 본교>.
 오렐리아 분교장 : 그곳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거나 문제아 등등을 한 곳에 모아 소모시켜 버리기 위해서 말이지.
 오렐리아 분교장 : 너희들도 그리고 나를 포함한 교관들도 동일한 입장이다.
 린 : ...
 란돌프 : 어이, 어이...
 미하일 소령 : 부, 분교장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오렐리아 분교장 : ---하지만 상재전장(常在戰場)이란 말이 있다.
 오렐리아 분교장 : 평화로운 때엔 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체험하기에는 절호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오렐리아 분교장 :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각오가 없는 자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오렐리아 분교장 : ---교련 중에 정신을 팔았다가 여신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싫으면 말야.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없는 건가. 그럼 잘 왔다. <톨즈 사관 학원 제 2 분교>에!!
 오렐리아 분교장 : [젊은이들이여, 세상의 초석이 되어라---]

오렐리아 분교장 : 위대한 드라이켈스 제왕의 말을 빌어 제군들을 환영하도록 하마!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 아차, 순간 기백에 넘어가 버렸는데…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응… 결국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은발의 소녀 : …

린 : … 장군, 아니 분교장님.

린 : 슬슬 “반 지정”을 계속해서 발표해주시겠습니까?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웃…!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옛…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그러지.

오렐리아 분교장 : --분교의 반 편성은 본교의 I~VI반에 이어서 VII~IX반의 3개 반으로 이루어진다.

오렐리아 분교장 : 너희들 3명의 소속은 <VII반 특무과> ---

오렐리아 분교장 : 담당하게 될 교관은 바로 눈앞에 있는 린 슈바르처가 맡는다.



아인헬 소형 요새(アインヘル小要塞)



금발의 소녀 : 우와아…!
금발의 소녀 : 보내온 도면을 보았긴 했지만 이렇게 컸다니…!
슈밋트 박사 : 흥, 이 정도로 호들갑 떨지 마라.
슈밋트 박사 : 전해준 대로 네겐 각종 오퍼레이션 작업을 맡길 거다.
슈밋트 박사 : 랫셀의 이름에 걸맞은 기술과 솜씨. 보여봐라.
금발의 소녀 : 아, 네…!
린 : (열차에서 만났던 여자 아이… 역시 제2분교의 학생이었나.)
린 : (랫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느낌인데.)



린 : (…것보다.)

린 : (<VII반 특무과>...라니 우연스럽진 않군.)

린 : (학생 수는 고작 3명, 그 중에 하나가 "그녀"라는 건...)

미하일 소령 : 현재, 전술과와 주계과는 제각각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하일 소령 : VII반 특무과에겐 입학 이전에 실력테스트로서 이 소령 요새를 공략하도록.

린 : ...



핑크머리 색의 여자 아이 : 고, 공략이요...?

청회색 머리의 남자 아이 : 애당초 이 건물은 대체...

슈미트 박사 : 아인헬 소령 요새-- 제2 분교와 동시에 건조한 실험용 특별 훈련 시설이다.

슈미트 박사 : 내부는 도력기구에 의한 가변식으로 난이도 설정도 마음먹은 대로--

슈미트 박사 : 적 타겟으로서 마수 등등이 다수 배회하고 있지.

청회색 머리의 남자 아이 : 뭣...!?

핑크머리 색의 여자 아이 : 마, 마수--- 농담이죠!?

린 : ... 과연, <VII반>, 그리고 <특무과>.

린 : 그 이름들을 실감하게 하는 입학 오리엔테이션인가요.

린 : 신입 교관에 대한 실력 테스트를 겸해서.

미하일 소령 : 훗, 말할 수고가 떨어져 편하군.

미하일 소령 : 그렇다곤 해도 예전 자네가 있던 <VII반>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미하일 소령 : 교관인 자네 자신이 인솔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특무소대--

미하일 소령 : 그렇게 말하는 편이 타당한 표현이겠지.

린 : 과연... 그래서.

핑크머리 색의 여자아이 :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핑크머리 색의 여자아이 : 암전히 입 다물고 따라와 봤더니 알 수 없는 말만 멋대로...

핑크머리 색의 여자아이 : 그런 시험... 아니. 이런 반에 소속하고 싶다고 한 마디도 안했는데요!?

미하일 소령 : 적성에 맞는 선발을 한 결과다. 크로포드 후보생.

미하일 소령 : 그게 불만이라면 짐을 싸서 군경학교로 돌아가도 상관없다만?

핑크머리 색의 여자아이 : 큼...

린 : (군경(軍警)학교...? 분명 크로스벨에 있는--)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납득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청회색 머리의 남자아이 : 그래서 저희들은 무얼 하면 됩니까?

미하일 소령 : 음-- 슈바르처 교관을 포함해 4명은 소령 요새 내에서 한동안 대기.

- 4개의 마스터퀘츠를 넘겨 받았다 -

미하일 소령 : 그 동안에 각종 정보와 함께 슈바르처 교관은 후보생들에게 ARCUS II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었으면 한다.

린 : ---알겠습니다.

핑크머리색의 여자아이 : 저, 정말!? 오렐리아라면 방금 전의...
핑크머리색의 여자아이 : 것보다 노잔브리아 합병에까지 공헌을 했다니...!



은발의 소녀 : ...잘못된 정보네요. 실제로는---
린 : 아니, 잘도 알고 있는 걸. 영웅 따윈 과분한 별명인데.
린 : 그렇다곤 해도 일단 소개를 하게 해줘.
린 : 린 슈바르처, 톨즈 사관 학원, 본고 출신이야.
린 : 저번 달, 막 졸업한 참이라 여기 제 2분교에 신입 교관으로 오늘 부임을 했어.
린 : 무술, 기갑병 교련을 담당하고 실내 수업은 역사학을 가르치게 될 거야.
린 : <VII반 특무과>의 담당교관을 맡게 될 듯하니까 잘 부탁한다.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으...



청회색 머리의 남자 아이 : --그럼 저도.

크루트 : 크루트 반달. 제도 해임달 출신입니다.
 크루트 : 슈바르처 교관에 대한 것은 일단 소문이외에 관한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린 : 반달-- 그랬었군.
 린 : 그럼 잭스 장군이나 물러 중령의...?



크루트 : 물러는 제 형, 잭스는 삼촌에 해당됩니다.
 크루트 : 뭐, 머리색을 비롯해 전혀 닮은 구석이라곤 없지 않아요.
 린 : 그건...
 린 : (분명 흑발도 아니고 전혀 닮지 않은 듯한...)
 크루트 : -- 그런 것보다 그 안경은 걸멋용인가요?
 크루트 : 그다지 어울리지 않으니 벗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린 : 음...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푸흠... 아하하...!!
 은발의 소녀 : 뭐, 그 나름대로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린 : ...하아,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각하고 있으니 좀 참아줘.
 린 : 잘 부탁한다, 크루트. ---그럼 다음 소개로.
 핑크 머리의 여자아이 : 음... 아아, 정말. 알겠어요!
 유우나 : 유우나 크로포드. 크로스벨 경찰학교 출신이에요.
 유우나 : 솔직히 친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린 : 크로스벨 출신인가...그렇군.
 린 : 그런데 경찰학교라는 것은 크로스벨 준경찰학교를 말하는 거지?
 유우나 : 합병 전에는 경찰학교였어요! 그걸 제국이 멋대로 바꿔서는...
 유우나 : 정식명칭 이외에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린 : 아니... 다른 뜻은 없었어. 미안, 경솔한 질문이었군.
 유우나 : 으...아니요. 저도 말이 심했네요.
 유우나 : 하지만 -- 납득은 못해요.
 린 : ...응, 그럴 테지.
 크루트 : ...?
 은발의 소녀 : 마지막은 저네요.
 알티나 : 알티나 오라이온. 제국군 정보국 소속이었습니다.
 크루트 : ...!?
 유우나 : 에...?
 린 : (그렇게 쉽게 털어 놓는 건가...)
 알티나 : 일단, 여기에 입학된 시점에선 소속에서 제외하기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알티나 :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크루트 : ...흘려버리면 안 될 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인데.
 유우나 : 정보국이라면 소문으로 들었던...

유우나 : 것보다 “말 맞추었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알티나 : 실례. 잘못 말했네요.

린 : (하하... 여전히네.)

소녀의 목소리 : 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소녀의 목소리 : 아인헬 훈련 요새. LVO 세팅 완료되었어요!

소녀의 목소리 : <ARCUS II>의 준비가 아직이라면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유우나 : 이걸, 아까 전 금발의...

크루트 : 우리들과 같은 신입생이었을 터인데...

린 : 오케이, 잠시 기다려줘!



린 : 그럼 ---급작스럽겠지만 세 명 모두, 이것은 가지고 있겠지?

크루트 : 네, 그거라면---

유우나 : 미리 보내줬던 거네. 아직 기동은 해보지 않았지만...

린 : 전술 오브먼트 --사용자와 연동하는 것으로 갖가지의 기능을 발휘하는 개인단말기야.
 린 : 도력마법(오발 아츠)에 쓰거나 신체능력을 향상되기도 하는데...
 린 : 이 최신 단말기 <ARCUS II>에는 한층 더한 신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크루트 : ARCUS II-
 유우나 : ENIGMA와는 다른 제국제의 전술 오브먼트인가...
 알티나 : 정확히는 제국 라인폴트사와 엠스타인 재단의 공동개발이에요.
 알티나 : 마침내 실전 배치인가요.
 린 : 응, 신기능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린 : 세 명 모두, 이걸 받아주기 바라.

- 3인에게 각각 다른 마스터 퀘츠를 넘겼다. -



크루트 : 이건...
 유우나 : 에니그마에도 있던... 분명 “마스터 퀘츠”라고 했던가요.
 린 : 응, 기본 개념은 동일할 거야.
 린 : 열려진 슬롯의 중앙 판에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세팅을 해줘.
 크루트 : ...알겠습니다.
 유우나 : 어디보자, 여기가 맞나...?
 린 : (그럼, 나도 끼워두기로 할까...)

마스터 퀘츠를 린의 ARCUS II에 세팅해주십시오.
 마스터 퀘츠의 세팅은 캠프메뉴의 [ORBMENT]로 실행합니다.

유우나 : 와앗...
 크루트 : 이게...
 린 : 마스터 퀘츠를 장착하면 ARCUS II가 소유자와 동기를 한 거야.
 린 : 이걸로 신체 능력도 강화되고 아츠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테지.
 크루트 : ...그렇군요.
 유우나 : 왜, 왠지 에니그마와는 꽤나 다른 듯한...

??? : ---흠, 준비는 다 끝난 건가?
 린 : 슈밋트 박사님? 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슈밋트의 목소리 : 그럼 어서 당장 시작하지.
 슈밋트의 목소리 : LV0의 스타트 지점은 B1. 지상에 도착하게 되면 클리어하게 된다.
 소녀의 목소리 : 바, 박사님...? 그 붉은 색의 레버는...
 소녀의 목소리 : 아, 안돼요~! 그렇게 막 눌러 버리면!
 슈밋트 박사 : 예잇, 랫셀의 손녀 주제에 상식인 것처럼 행동 하지 마...!

슈밋트의 목소리 : ---그럼 실력어디 볼까. <VII 특무과> 제군들.
슈밋트 박사 : 이 시험구획을 기준점 이상으로 클리어가 가능할 지를 말아!



유우나 : 옛--?
크루트 : 뭐야...!?
린 : 몸의 중심을 잡고 낙범으로 낙하 후 충격에 대비해!
린 : 알티나는 --
알티나 : 클라우=솔라스.
린 : ...괜한 걱정이었나.
유우나 : 으, 음...
유우나 :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정말...



유우나 : 그 박사라는 사람이 말하자마자 쿵하고 바닥이 열리고--
크루트 : ...저기... 분명 유우나라고 했던가.

유우나 : 에?
 유우나 : ...
 크루트 : 미안한데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 주면 좋겠는데...?
 크루트 : 무거운 건 아닌데 호흡하기에 곤란해서 말야.
 유우나 : 뭐, 뭐, 뭐...
 린 : 이, 이건---(웬지 데자뷰 같은...)



알티나 : 탄력성이 있는 바닥... 타박상의 걱정은 없을 듯하네요.
 알티나 : 하지만 어째선지 린 교관님 때처럼 파렴치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린 :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의 발언은 하지 말아줘.
 린 : 것보다, 교관님이라니... 적응이 너무 빠른 거 아냐?
 알티나 : 그런 체질이므로.
 유우나 : ~~~~~으~~~~



크루트 : ...사고라는 점은 이 경우에 전혀 고려의 여지는 없을 듯하군.
 크루트 : 변명은 하지 않겠어. 한 대, 때리도록 해.
 유우나 : 후, 후후... 좋은 마음가짐이네...
 유우나 :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대응을 받으니
 그건 그것대로 열이 받지만...
 유우나 : 일단 사양 않고 받아주지!
 유우나 : ...흠, 이래서 제국의 남자들이란...!!
 알티나 : 그다지 제국 출신이란 점은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요.
 린 : 저기... 상황이 안 좋았군.
 크루트 : 아니요... 자세를 잡지 못하고 추락해버린 것도 저의 수행부족 탓이니까요.
 크루트 : 게다가 우연이었다곤 해도 여자에게 쓸데없는 수치감까지 주다니
 ---자신의 미숙함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린 : 그, 그럴군... (꽤나 건실한 성격이군.)
 린 : -- 세 사람 다, 큰 상처는 없는 거지?
 린 : 그럼 이제부터 이 소형 요새의 공략을 시작하자.
 린 : 각자의 무장을 일단 보여주길 바라.
 유우나 : 것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진심으로 대응할 생각이세요!?
 린 : 박사님에 대해선 조금 아는 게 있다면 장난식으로 이런 짓을 벌일 성격은 아니야.
 린 : 진심으로 우리를 4명의 실력을 측정하려고 할 테지.
 린 : 무사히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전원의 전투스타일을 파악해 두고 싶어.
 유우나 : 으음...



<http://suyu.history.com/>

크루트 : 알겠습니다. ---제 무기는 이겁니다.
 유우나 : ...이도류(二刀流)...?
 알티나 : 매끄러운 검격이네요.
 린 : 반달가(家)의 쌍검술... 존재하고 있다곤 들긴 했었지만.
 크루트 : 강검술(剛劍術)쪽이 유명하니까요.
 크루트 : 하지만 그 검술은 타고난 체격과 근력이 필요하므로...
 크루트 : 이 쪽이 제게는 맞습니다.
 린 : ...그렇군. 유우나, 너는 무슨 무기지?
 유우나 : 음... 멋대로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맘에 안 들긴 하지만...
 유우나 : 사관학교의 신입생으로서 일단,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곤 있어요.
 크루트 : 그건...
 알티나 : 토파 계열의 경찰근봉?
 린 : 아니, 그것치고는 복잡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린 : 어떠한 용도의 무기지?

유우나 : 건브레이커-- 크로스벨 경비대에서 개발한 총기(銃器)구조가
부착된 특별한 경봉(警棒)이에요.



유우나 : 모드를 변환하여 중거리의 범위 공격이 가능해져요.
알티나 : 그런 새로운 무기가...
린 : 크로스벨 경비대... (자치주 경찰에 소속된 무장부대(武裝部隊)였던가.)
린 : (란돌프 중위도 그곳의 소속이었을 터...)
린 : ---알겠어, 그 무장의 성능은 실전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
린 : 보아하니 사용에도 꽤 익숙한 모양이고.
유우나 : 다, 당연하죠!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했었으니까요!
유우나 : 제국인이 사용하는 오래된 검술 따위보다 도움이 될 거예요!
크루트 : (으음...)
유우나 : 흐, 흠...



린 : 뭐, 그 부분은 서로 실전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테지.
 린 : 다음은--- 알티나.
 알티나 : 네.
 유우나 :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유우나 : 이렇게 작은 여자 아이가 어떻게 사관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죠?
 크루트 : ...나도 계속 신경쓰였어.
 크루트 : 정보국 출신이라고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투에 참가시킬 수는 없는게 아닌지?
 린 : ...뭐, 개인적으로 동감이긴 해.
 알티나 :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티나 : 제 신체연령은 14살 정도. 나이에 비해 작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유우나 : 시, 신체연령...? 나, 나이로 볼 때 충분히 어린 게--
 알티나 : 그리고 정보국에 소속될만한 근거가 된 "무기"도 있습니다.
 칠흑의 기계인형 : БжѳxФ
 유우나 : 뭐, 뭐, 뭐...
 크루트 : 그러고 보니 방금 전 검은 그림자가 일순간 보였던 게...
 알티나 : 클라우=솔라스--- <전술각>이라고 하는 특별무장의 최신에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티나 :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전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우나 : ...저기, 제국이란 곳은 저런 게 보통인 거야?
 크루트 : 그럴 리가 없잖아... 나 역시 처음 봤어.
 크루트 : (<황금 나찰>에 <젯빛 기사>, 게다가 이런 소녀까지...)
 크루트 : (제 2 분교--- 대체 무엇을 위한 곳이지?)
 린 : 의문은 당연하겠지만 일단 어서 행동을 개시하자.
 린 : --아. 덧붙이자면 내 무장은 이거야.



크루트 : <팔엽일도류>의 "태도"...
 유우나 : ... 그 때의...
 유우나 : 아니, 아리오스씨가 사용했었던 것이랑 동일한 무기네.
 린 : 그래, 제국풍의 "검"이 아니라 동방풍의 "도검(刀)"에 해당하는 무기야.
 린 : 하하, 역시나 <바람의 검성>은 유명한 모양인 걸?
 유우나 : ...여러 사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팬이 많으니까요.
 유우나 : 어딘가의 나라 덕분에 지금도 수배중인 몸이지만요.
 린 : 응... 그런 모양이더군.
 린 : --좋아, 그럼 공략을 시작하자.
 린 : 현재의 위치는 B1. 지상으로 나가면 이 "실전 테스트"도 종료야.

린 : 실전의 요령, 아츠의 사용법, ARCUS II의 기능 등등도 한꺼번에 설명해나가지.
 린 : 신속하면서 확실하게-- 단 우리는 하지 않으며 잘 따라와 주길 바라.
 유우나 : 으...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예요!
 크루트 : ...일단 해야 한다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티나 : 그럼 지금부터 상황을 개시합니다.

~[노트 메뉴(ノートメニュー)]에 관해서~

필드 이동 중, 또는 캠프 메뉴 중의 톱 화면에서 터치패드를 누르면
 노트메뉴가 열립니다.
 노트 메뉴에는 갖가지 종류의 정보를 보는 것이 가능하고 스토리 진행에 맞추어
 잠금이 해제됩니다.
 또한 메인 노트(メインノート)에선 게임의 종합 성적을 참고 가능하고
 네비게이션에 로그 경력이 기록됩니다.

트로피 신VII반 결성(新VII組始動!)획득.



Event Chat.



린 : 정면의 문으로 진행해 갈 수 있을 거 같군. 준비가 완료되면 출발하자.
 유우나 : ...알겠어요.(나는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길을 따라 진행하면 이벤트 발생.

린 : ... 모두, 멈춰.
 유우나 : 마, 마수...!
 크루트 : ...들어오자 마자인가.
 유우나 : 정말로 마수를 풀어 놓았다니...!
 알티나 : 린 교관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린 : 그렇군... 현시점에서의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린 : 전원, 전투 준비를 해!
 유우나 : 잠, 정말로 이 아이도 싸우게 할 셈이에요!?
 알티나 : ...?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적은 아닙니다만?
 린 : 괜찮아. 나도 살펴 볼 테니까.
 린 : 이 멤버로 전투에 돌입한다... 너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유우나 : 으... 알겠어요!

크루트 : 교관님의 실력,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트 공격(アサルトアタック)]에 관해서~

어설트 포인트가 모인 상태에서 R2 버튼을 누르면 어설트 공격이 발동이 됩니다.
통상적인 필드공격과 달리 적에게 히트하면 그 순간 전투돌입이 발생하며
기습공격과 같은 효과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Event Battle!!

샤이린 x 2 (シャイリーン)

튜토리얼용 자코 몬스터. 가볍게 격파하자.



알티나 : 적대적인 마수, 격파했습니다.

린 : 후우... 첫 전투로서는 그럭저럭이군.

린 : 모두, 다친 데는 없지?

크루트 : ...네, 문제없습니다.

유우나 : 우리들보다도...

유우나 : 저기... 알티나, 옳었지?

유우나 : 저기, 전투는 문제...없었던 모양이네?

알티나 : ? 뭐가 말인가요?

유우나 : 으... 뭔가 황당무계하네.

크루트 : <전술각>... 이런 사용법이 존재할 줄이야.

크루트 : 게다가 그녀 자신은 나름대로 전장에 섰던 경험이 있는 모양이죠?

린 : 그래, 딱히 부정은 안하겠어.

린 : 하지만 뭐, 너희들보다도 나이 어린 여자 아이인 것 또한 변함없는 사실이야.

린 : 두 사람도 실전은 문제없는 모양이니 되는 한 신경 써주길 바라.

유우나 : 마, 말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크루트 : ...뭐, 마수의 반응도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점도 없었고 관찰을 거야.

크루트 : 너의 크로스벨 최신풜기라는 것도 조만간 실력을 보여줄 테고 말야.

유우나 : (우...)

알티나 : 갈 길이 머네요.

린 : 남 얘기처럼 하지 말아줘... 아무튼 앞으로 나아가자.

~ 전투 노트(戦闘ノート)가 해금 되었습니다 ~

전투노트는 조우하여 전투했던 적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집니다.

또한 적 정보를 완전하게 열람하기 위해선 동일한 적과 반복적인 전투를 하거나 특정 크래프트나 아츠, 그리고 아이템을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우나 : 이걸... 오브먼트 회복장치네요.

린 : 응, 위험해지면 여기까지 되돌아오는 편이 좋을 거야.

이 기계는 위험한 장소에 설치된 오브먼트 회복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O 버튼으로 조사한 후, [휴식을 취한다(休憩する)]를 선택하면 HP, MP를 회복이 가능합니다.



유우나 : 곤충계열의 마수인가... 단단해서 공격하기 성가시겠네.
 알티나 : 네, 게다가 꽤 날렵할 것 같네요.
 크루트 : ---저런 마수는 아츠로 대처하는 편이 무난하겠지.
 린 : 하하, 잘 알고 있네.

처음보이는 상자를 조사하여 퀘츠를 발견하면 대화 발생.



크루트 : 퀘츠가 들어 있는 듯하네요.
 린 : 그래, 모처럼 얻었으니 오브먼트에 세팅해보도록 해.
 유우나 : 마,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예요.

길을 따라 다시 나아가면 이벤트 발생.

크루트 : 또 마수인가...
 알티나 : 끊임없이 나오니... 꽤나 성가시네요.
 유우나 : 후우--- 슬슬 그걸 써볼까나.
 린 : 건브레이커--- 마침내 진가를 발휘할 때인가.
 크루트 : 뭐, 어떤지 볼까.
 유우나 : 흥, 똑똑히 봐두라고!



Event Battle!!

쥬시 오르겐(ジュシーオルゲン), 샤이린 x 4 (シャイリン)

잔뜩 나오지만 역시나 조우래기 몬스터들. 잔뜩 나오는 샤이린들은 유우나의 건너모드의 기본공격 범위에 쏠려 나갈 테니 어렵지 않다.
 영전 전통의 단골(?) 슬라임 몬스터 쥬시오르겐은 물리공격 보단 아츠 공격으로 잡는 게 수월하다.



유우나 : ㅎㅎ, 이정도 쫘이야!
 알티나 : 과연... 꽤 괜찮은 섬멸력이네요.
 린 : 반면에 돌파력은 조금 떨어지는 듯한데...
 린 : 중요한 것은 운용에 달려있다는 건가. --굉장한 무기인걸.
 크루트 : 네, 솔직히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유우나 : 해에,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네?
 크루트 : 뭐, 무기에 관해서만은.
 유우나 : ... 정말 귀엽지 않은 녀석.
 린 : 하하...

~ 유우나의 [모드체인지(モードチェンジ)]에 관해서 ~

건너모드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약간 내려가지만 통상공격의 범위가 넓어지고 카운터 공격의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강적 상대로는 스트라이커 모드, 복수의 조우래기 상대로는 건너 모드로 전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유우나의 모드 체인지는 캠프메뉴[EQUIP]에서도 가능합니다.

다시 길을 따라 나가면 재차 이벤트 발생.

유우나 : ...이번엔 커다란 녀석이 있네요.
 린 : 그렇군 ---슬슬 <전술 링크>를 시험해볼까.
 알티나 : 네, 그 편이 좋겠네요.
 크루트 : 흠, 시도해보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린 : 뭐, 말보다 한번 해보는 게 좋겠지. 우선은 세팅해두도록 하자.

- 전술 링크가 사용가능이 되었습니다 -
- 링크 설정이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캠프 메뉴를 열어서 [TACTICS]화면에서 링크를 맺습니다.

린 : 좋아... 그럭저럭 잘 됐군.
 크루트 : 지금 것이 <전술 링크>...
 유우나 : 마, 마치 모두와 "이어진" 것 같은...
 알티나 : 현재의 멤버간 링크도 특별한 위화감은 없네요.
 알티나 : 이거라면 이후에도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린 : 그래, 앞으로의 실전에서 "핵심"이 될 거야.

린 :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빠른 기일내에 익숙해지길 바라.
린 : ---전투의 기본은 이상이야.



린 :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점이랴?
크루트 : ...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유우나 : ...저도 없어요.
유우나 : 하지만 이 정도나 되는 전술 오브먼트가 이미 실전배치가 되어있다니...
유우나 : 여러모로 자세한 모양인데 설마 너도 개발에 가담을 한 거야?
크루트 : 그러고 보니... 꽤나 스무스하게 사용을 하던데.
알티나 : 아니요, 이전 세대 버전의 운용경험이 있는 거뿐입니다.
알티나 : 구태여 따지자면 전전년도에 교관님 일행이
수행했다던 테스트 운용에 결과물이 아닐는지?



크루트 : ...후우, 그럴군요.

유우나 : 이, 이것도 교관님의 공적이라는 건가요!?
 린 : 아니, 나 혼자라기 보단 같은 반 모두의 성과일려나.
 린 : 게다가 운용 테스트에 참가했던 것은 우리들만은 아닐 터야.
 유우나 : 흐, 흠... 꽤나 겸손하시네요? <젯빛 기사>정도의 사람이.
 린 : 후우, 그 호칭은 그다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크루트 : (...<젯빛 기사>, 인가.)
 크루트 :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의...?)
 린 : 왜 그래, 그 외에 뭔가 묻고 싶은 거라도 있는 거야?
 크루트 : ...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크루트 : ARCUS II의 성능은 이해했습니다. 슬슬 진행해가죠.
 유우나 : 그러네... 이런 곳에서 언제까지 머물러있고 있긴 싫으니까!
 알티나 : 그럼, 탐색을 속행하지요.
 알티나 : ... 왜 그러시죠?



린 : 아니... “교관님”은 새삼, 굉장했다고 생각이 돼서 말야.
 린 : 제멋대로이긴 했지만 이래저래도 그 정도의 인원을 도맡았었고 말야.
 알티나 : ????.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알티나 : 어쨌든 지금까지처럼 저는 당신을 서포트할 뿐입니다.
 알티나 : 상황의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면 지시를 내려주세요.
 린 : ... 응, 알았어. 마음만은 받아들게.
 린 : 아무튼 꽤나 진행해온 것은 틀림없을 거야.
 린 : 방심하지 말고 진행하자.
 알티나 : 알겠습니다.

- 캠프 메뉴에 [LINK-LV] 화면이 해금되었습니다. -

~ <전술링크(戰術リンク)>에 관해서 ~

<전술 링크>는 전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스템입니다.
 링크를 맺어두는 것만으로 링크어빌리티 [마무리 일격]이 발생하는 것 외에--
 반복해서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캐릭터 간의 링크 레벨이 상승하여
 보다 강력한 링크 어빌리티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맺는 것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2인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맺어두도록 합니다.

~ 무기속성과 [무너짐(브레이크)]에 관해서 ~

---링크 어택의 기점이 되는 [무너짐] 발생은 캐릭터의 무기속성과 적의 상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연체형 마수라면 린의 도검이 가지는 [베기(斬)]속성으로
 갑각형 마수라면 크루트의 쌍검이 가지는 [찌르기(突)] 속성으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비행형 마수에 강한 [던지기(射)]나
 암석형 마수에 강한 [부수기(剛)]등의 무기 속성이 있으며
 어떠한 속성을 가질 지는 캐릭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유우나의 스트라이커모드는 강속성을 가지는 반면,
 건너 모드는 사격속성을 지닙니다.

~ 크리티컬 시의 [무너짐]에 대해서 ~

AT 보너스의 [CRITICAL]에서는 무기속성에 관계없이 통상공격이나 크래프트 공격으로
 섬(閃)의 문자와 함께 반드시 [무너짐]이 발생합니다.
 남아있는 적의 전력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Event Chat.



금발의 소녀 : 그쯤에서 딱 절반 정도...네요.
 여러분 후반부도 힘을 내주세요!
 크루트 : 응, 고마워.
 크루트 : (하지만 이 설비도 그렇고... 제2분교,
 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든 곳이지?)

이벤트 첫 후에 길을 따라 더 나아가면 이벤트 발생.

린 : 저건...
 유우나 : 저 마수... 다른 것들 보다 한층 더 큰 거 같은데요.
 알티나 : 현재 보유 전력으로는 약간 애를 먹겠네요.
 린 : 후우, 설마 저런 것까지 배회하고 있을 줄이야...

크루트 : ... 우회해서 다른 루트를 찾으세요?
 린 : 아니-- 여기는 정면으로 공격하자.
 유우나 : 정면이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린 : 그럴지라도 알아.



린 : 이쪽은 4명-- 지금이라면 전술 링크의 연계도 가능해.
 린 :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기본을 숙지했다면 반드시 격파할 수가 있을 거야.
 유우나 : 아...
 크루트 : ...알겠습니다. 저도 이견 없습니다.
 알티나 : OK ---전투태세로 이행합니다.
 린 : 상황을 개시한다-- 단숨에 공격하자!!



Event Battle!!

기гант 오르겐,(オルゲンギgant), 쥬시 오르겐(जूशी-オル겐) x 4

<p>オルゲンギgant</p> <p>Lv 7</p> <p>HP 2015 / 3961</p> <p>EXP 176</p> <p>入手セヒス</p> <p>♣ 8 ♠ 9 ♣ 12 ♣ 2</p> <p>♣ 8 ♠ 10 ♣ 8 ♣ 16</p> <p>入手アイテム</p> <p>HP 2</p> <p>जूशी-オル겐が異常な成長を遂げた巨大な魔獣。重量級の軟体は更なる厄介な障害に。</p>	<p>体勢崩し有効度</p> <p>新★★★★★ 射★★★★★</p> <p>魔法属性有効率</p> <p>炎 180</p> <p>氷 120</p> <p>雷 100</p> <p>風 80</p> <p>状態変化有効率</p> <table border="1"> <tr> <td>毒</td><td>20</td><td>気絶</td><td>50</td></tr> <tr> <td>封技</td><td>50</td><td>混乱</td><td>20</td></tr> <tr> <td>封魔</td><td>50</td><td>魅了</td><td>20</td></tr> <tr> <td>睡眠</td><td>50</td><td>即死</td><td>20</td></tr> <tr> <td>沈黙</td><td>100</td><td>暴走</td><td>100</td></tr> <tr> <td>凍結</td><td>50</td><td>回避</td><td>20</td></tr> <tr> <td>撃退</td><td>50</td><td>閉塞</td><td>20</td></tr> <tr> <td>石化</td><td>20</td><td>重力落下</td><td>20</td></tr> </table>	毒	20	気絶	50	封技	50	混乱	20	封魔	50	魅了	20	睡眠	50	即死	20	沈黙	100	暴走	100	凍結	50	回避	20	撃退	50	閉塞	20	石化	20	重力落下	20
毒	20	気絶	50																														
封技	50	混乱	20																														
封魔	50	魅了	20																														
睡眠	50	即死	20																														
沈黙	100	暴走	100																														
凍結	50	回避	20																														
撃退	50	閉塞	20																														
石化	20	重力落下	20																														

⓪ キャプ回転

<http://sugu.fistary.com/>

쥬시오르겐은 물리공격 보단 아츠 공격으로 잡는 게 수월한 쥬시오르겐 4마리와 중보스급 포스를 보여주는 기간트오르겐과의 이벤트 전투.
쥬시오르겐과 마찬가지로 아츠에 취약하다 특히나 지속성계열의 아츠에 대한 피해율이 매우 높으니 적극적으로 노리자. 브레이크를 꾸준히 내주어 범위형 크래프트 공격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

알티나 : 적대적 마수의 침묵을 확인.
유우나 : 하아아~... 꽤나 애를 먹긴 했지만...
크루트 : (...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상대는 아니었군.)
린 : --두 사람 다, 아직 안 끝났어!!



유우나 : 옛...
크루트 : 아뿔--
알티나 : 클라우=솔라스!!
린 : ---우오오오!!

린의 S 크래프트 [일곱번째 태도 낙엽(七の太刀 落葉)]이 사용가능해졌다!



Event Battle!!

기간트 오르겐,(オルゲンギガント)

마지막 목숨을 불태우는 기간트 오르겐과 재전투.
린의 S크래프트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 전투니 사양 말고 S크래프트로 썰어주자.

유우나 : ...아...
크루트 : (지금 것은...?)
린 : 흑... 후우...
린 : 유우나, 크루트... 알티나도 다친 곳은 없지?

유우나 : 아, 네...
 크루트 : ... 덕분에요.
 알티나 : 제 쪽도 손상 제로-- 문제없습니다.
 린 : 그런가... 알티나, 돌발적인 상황에 잘 대응해주었어.
 린 : 유우나와 크루트, 적의 눈앞에서 무장을 풀었었지?
 린 : 적의 침묵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는다 ---실전의 기본이야.
 유우나 : ...네.
 크루트 : ...죄송합니다.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린 : 아니... 잘난 듯 설교했지만 잘잘못을 따지자면
 지금 것은 완전히 지도역할인 내 미스야.



린 : 역시 나도 교관으로서 아직 미숙하다는 거겠지.
 린 :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교관이야.
 린 : 이 실전 테스트에서 너희들이랑 마찬가지로 시험받는 위치에 있지만 말야.
 린 :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의 눈으로 나를 판단해줘.
 린 : 진짜로 내가--- <VII반>의 교관으로서 함당한지들.
 유우나 : ...아...
 크루트 : ... 그 말은.
 알티나 : ...판단...?
 린 : 이 테스트가 종료 후, 너희들이 바란다면 “전과(轉科)”의 선택지도 없는 건 아냐.
 린 : 그 때에는 내가 직접 분교장님에게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린 : --그러면 어때?
 슈밋트 박사의 목소리 : ---월 멍하니 서있나?
 슈밋트 박사 : 시간을 낭비하지 마. 어서 테스트를 재개해라.
 소녀의 목소리 : 종정이 가까워요- 조심해서 진행해주세요.
 린 : 하하... 너무 얘기가 길었던 모양이군.
 린 : 탐색을 재개하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가자고.
 알티나 : 알겠습니다.
 유우나 : ...뭐, 뭐야. 다 안다는 듯한 말투는.
 유우나 : ... 계다가 ... 또...
 크루트 : 또?
 유우나 : 아, 아무 일도 아냐.
 유우나 : 하지만... 판단해라, 인가.
 크루트 : 응... 아무래도 다소 우쭐했었던 모양이야.
 크루트 : ... 이래선 아버지나 형에게 고개를 못 들겠군.
 유우나 : 응, 나도... 이래선 월 위해 큰소리 치고 제국에 왔는지 모르겠어.
 유우나 : ---아무튼 가자, 크루트!

유우나 : 더 이상 저 사람에게만 품 잡게 둘 순 없지!
크루트 : 훗, 그러네. 알티나에게도 뒤쳐질 수는 없어.
크루트 : 이미 종점이 가까운 모양이지만... 가볼까!

아인헬 소형 요새 LV 0 가장 안쪽(最奥)



Event Chat.



슈밋트 박사 : 그 앞이 종점이다. 어서 들어오도록 해.
알티나 : OK-- 목표 포인트로 향합니다.



크루트 : 아...
유우나 : 하아, 하아... 바깥의 빛...?

알티나 : 지상층---지정했던 테스트 구역의 종점이 아닐까요?
 린 : 응... 그런 모양이군.
 유우나 : 아, 정말 제국인들이란...!!
 유우나 : 학교에 이런 훈련시설을 만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크루트 : 후우, 제국인인 전부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크루트 : ---G 슈밋트. 정말로 그 고명한 박사 본인이 맞는 건가요?
 린 : 응... 정말 아쉽게도 말이지.
 린 : 어째서 제2 분교의 고문으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린 : 이건---
 알티나 : 센서에 경고. 영자반응(靈子反應)을 검출했습니다.
 유우나 : 에...?
 크루트 : 영자반응...?
 소녀의 목소리 : 여, 여러분, 도망가세요!
 크루트 : ...!?
 유우나 : 이, 이건... 제국군의 <기갑병>!?
 알티나 : 아니요, 이건--



린 : <마황병(魔煌兵)> -- 암흑시대의 마도 골렘이야!
 린 : 슈밋트 박사님! 설마 이것도 당신이!?
 슈밋트 박사 : ---내전 때 동시에 출몰한 구시대의 기계장치를 포획했다.
 슈밋트 박사 : 기갑병보다는 출력이 떨어지지만 자율행동이 가능한 점은 매우 맘에 들어.
 슈밋트 박사 : 그걸 격파하는 것으로 이번 테스트를 종료하겠다.
 크루트 : 크, 진심인가...!?
 유우나 : 잠깐 이 매드사이언티스트! 적당히 하라구요!?
 린 : (이 멤버로는 벅차겠는 걸. 이렇게 되면--)
 린 : 와라, <재의 기신>--
 슈밋트 박사 : 기신의 사용은 금지다.
 슈밋트 박사 : LV 0의 난이도는 기신의 투입을 고려한 난이도가 아냐.
 슈밋트 박사 : 그 정도의 상대에게 쓴다면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
 슈밋트 박사 : 슈바르처. 모쪼록 네가 “비장의 수단”을 쓰던가--
 린 : 쿛...
 크루트 : (비장의 수단...?)
 슈밋트 박사 : --아직 사용하지 않은 <ARCUS II>의 신기능을 이끌어 내보는 게 좋을 거다.
 소녀의 목소리 : <브레이브 오더>모드를 기동해주세요...!!
 소녀의 목소리 : 올리비에씨 --- 오리발트 황자님이 린 교관님이라면 분명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卒業おめでとう。
そして心からの感謝を、リン君。

<http://sugu.fistory.com/>

오리발트 황자 : --졸업 축하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겠어, 린.
오리발트 황자 : 축하 선물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막 완성된 <ARCUS II>를
너희들 전원에게 선물하도록 하지.
오리발트 황자 : 실은 통신 부분에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해두었는데...
오리발트 황자 : 그 외에도 획기적인 신기능이 있으니 실전에서 도움도 되길 바라.
린 : 그런가 --- 알았어!
크루트 : 이건---!?



リン
トールズ第Ⅱ分校、Ⅶ組特務科、
全力で目標を撃破する!

<http://sugu.fistory.com/>

유우나 : 뭐, 뭔가가 저 사람에게서 흘러들어 오고 있어...!
알티나 : 전술 링크 --- 아니 그것과는 다른...
린 : --- Ⅶ반 전원, 전투준비!!
린 : <브레이브 오더> 기동---
린 : 톨즈 제2분교 Ⅶ반 특무과, 전력을 다해 목표를 격파한다!!
전원 : 오옷!!



Event Battle!!

마황병 다이아울프(ダイアウルフ)

魔煌兵 ダイアウルフ Lv 8 HP 6303 / 8857 EXP 384 入手セビス 16 20 11 12 18 17 27 23 入手アイテム アナライズSR 肥大化した両腕が特徴の魔煌兵。武器を用いず格闘に長け、力任せに地面に腕を叩きつけて凄まじい衝撃波を発生させる。		体勢崩し有効度 斬*** 突*** 射*** 剛*** 魔法属性有効率 炎 180 氷 120 雷 80 風 120 状態変化有効率 毒 0 炎地 5 炎封技 50 炎乱 0 封魔 0 魅了 0 瞬間 10 即死 0 睡眠 0 悪夢 0 突撃 5 遅延 50 凍結 10 沈黙 0 石化 0 重力低下 50	
---	--	---	--

http://sugu.history.com/

기신 클래스의 크기지만 통상 상태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다이아울프. 피가 어느 정도 달게 하거나 브레이크 상태를 만들면 다음 턴에 고양(高揚)을 사용한다. 고양 후 크래프트 워크라이(ワークライ)를 사용해 능력향상과 HP회복을 한다. 워크라이 후에 일격은 매우 강력하니 주의. 브레이브 오더만 적절하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유우나 : 하아, 하아... 쓰, 쓰러뜨렸어...
 크루트 : ...크... 하아...하아...
 알티나 : ...체력 저하.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린 :



소녀의 목소리 : 수, 수고하셨습니다! 테스트는 완전 종료예요!
 소녀의 목소리 : ---박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요~!
 박사의 목소리 : 흥, 예상했던 거보다 빠르군. 다음은 난이도를 좀 더 높이기로 하고...
 소녀의 목소리 : 아우우...제 말 좀 들어주세요~!?
 크루트 : ...터무니가 없군.
 유우나 : 다음이라니, 또 같은 일을 반복시킬 거라는 거야...?
 알티나 :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린 : --어쨌든 간에 "실력 테스트"는 종료야.
 유우나 : ...아...
 크루트 : ...죄송합니다.
 린 : 세 사람 모두, 잘 해주었어.
 린 : ARCUS II의 새로운 모드<브레이브 오더>도 성공---
 이 정도라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어.
 린 : 각자의 과제점은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될 거야.
 린 : <VII반 특무과> --인원수도 적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지 몰라.
 린 : 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선 제대로 된 사정도 모르는 내가 교관을 맡게 된 것도 불안하겠지.
 린 :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희망하면 다른 반으로의 전과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린 : 그러니까--- 마지막엔 너희들 스스로가 정했으면 해.
 린 : 자신의 생각,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장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자기자신"의
 모든 것을 고려해 본 후--
 린 : 이번 시험에서 얻은 것을 토대로 <VII반>에 소속할지 안 할지를 말야.
 린 : 분명 그것이 <VII반>에 소속하는 최대의 "이유"가 될 거야.
 유우나 : ---유우나 크로포드. <VII반 특무과>에 참가하겠습니다.
 크루트 : 에--?
 알티나 : ...아...
 유우나 : 착각하지 말아 주세요.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유우나 : 저는 크로스벨에서 본의 아닌 사유로 이 학교에 오게 됐어요.
 유우나 : 제국에 대한 것은 그다지 맘에 들지 않고,
 당신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아요.
 린 : 그런 거 같았어.
 유우나 : ...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당신의 지시나 어드바이스는 적절했어요.
 유우나 : 방금 전 괴물도 당신이 없었으면 격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유우나 : 확실하게 말해서 분하고, 경찰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살리지 못한 점도 원하던 바가 아니었고.
 유우나 : --그러니 결과를 낼 때까지, 실력을 보여줄 때까지는 <VII반>에 남겠어요.

유우나 : <젯빛 기사> ---마음에 들지 않는 영웅인 당신이 깜짝 놀라게 될 때까지 말이죠.
 크루트 : (...지리멸렬하군...)
 알티나 : (...논리적 정합성은 있는 듯합니다만)



린 : 후우... 그 영웅이란 것은 솔직히 그만해 주었으면 하는데.
 린 : 알겠어, 네 의사를 존중하지. <VII반>에 소속된 걸 환영해--- 유우나.
 유우나 : 으... ----네!



크루트 : 크루트 반달. 저도 <VII반>에 참가합니다.
 크루트 : 다만--- 적극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린 : 그건...
 크루트 : 이 제2분교가 제 소속을 이곳으로 정했다면 이견은 없습니다.
 크루트 : 이유가 꼭 필요하다면, 이번과 같은 실전의 기회가 많은 편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루트 : 전수받은 검 실력이 녹슬어서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요.

크루트 : 전수 받은 거...
 크루트 : 반달류 검법말인가요.
 크루트 : 그리고 모처럼이니 <팔엽>의 기술을 알아두는 것도 좋구요.
 크루트 : ---솔직히 소문을 들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진심입니다만.
 유우나 : (워야, 너무 건방지잖아...!?)
 알티나 : (남에게 뭐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린 : 하하...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수행중인 몸이라서 그럴 뿐이야.
 린 : ---알았어. 크루트. <VII반>의 참가를 환영하지.
 크루트 : ...네.
 알티나 : ...?
 린 : --- 남은 건 너뿐이야. 알티나.
 알티나 : 확인의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알티나 : 기밀사항이긴 하지만 임무내용에 기해서--
 린 : 그런 게 아니야, 알티나.
 린 : 네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묻는 거야.
 알티나 : ???
 유우나 : ...
 크루트 : (...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가?)
 린 :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참가를 허락지 않을 거야.
 린 : 정한 것이 분교장이건 설령 정보국이나 제국정부라도 그 부분만은 양보하지 않을 생각이야.
 린 : ...아무 거라도 좋아. 네 자신의 "이유"를 보여줘.



알티나 : 제 자신의 "이유"...
 유우나 : 자, 잠깐...! 왜 괴롭히는 거예요!?
 유우나 : 사정은 잘 모르지만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알티나 : ... "이유"는 생각나지 않아요.
 알티나 : 하지만--- 요 근래 1년간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지원했습니다.
 알티나 : 이 분교에 소속한다면 [린 교관님의 반]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티나 : 그리고 1년 반전(前)에 제 임무를 가로막았던 톨즈 사관학원 <VII반> --
 알티나 : 그 이름에 다소 흥미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티나 : ... 이걸로는 불충분한가요?
 유우나 : 아...
 크루트 :
 린 :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환영할게, 알티나.
 알티나 : 네.
 유우나 : 흐, 흐... 사람 애타게 하긴.

크루트 : 후우... 파란만장하겠군.

린 : --그럼, 이 자리에서 <VIII반 특무과>의 발족을 선언하지.

린 : 서로 "신입"인 사이니 교관이랑 학생만이 아니라



린 : “동료”로서 함께 맘을 흘리며 서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토와 : 린...

관돌프 : 해에... 어떻게 될지 신경이 쓰여서 와보았더니.

미하일 소령 : ...제멋대로군. 일개 교관이 학생의 소속을 결정할 권한 따위는 없는데.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전과의 요청이 있다면 나는 허락할 생각이었는데.

미하일 소령 : 분교장님, 외람됩니다만---

오렐리아 분교장 : 결과만 맞으면 되잖아. 그들은 스스로 “정했다”

오렐리아 분교장 : VIII반, IX반 역시 시작은 순조롭고.

“버리는 말”치고는 꽤나 좋은 시작이야.



오렐리아 분교장 : ---가까운 시일 내에 움직임이 있을 거야.
 모쪼록 병아리들을 단련시켜두도록 해.
 오렐리아 분교장 : 격동의 시대에 휩쓸려 덧없이 목숨을 잃게 하고 싶지 않으면 말야.
 토와 : 무, 물론입니다...!
 미하일 소령 : ... 예스, 맘.
 란돌프 : 이런, 이런--- 대단한 곳에 와버리게 됐구만.



붉은 머리의 남성 : 나 참, 랫셀영감님 이상의 매드사이언티스트로구만.....
 붉은 머리의 남성 : 유학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저런 영감의 제자로 들어가 버린 거 정말로 괜찮은 거냐?
 금발의 소녀 : 아하하... 하지만 역시나 굉장한 사람이네요...!
 금발의 소녀 : 같은 신입생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듯하고요...
 금발의 소녀 : ---게다가 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언니 일행의 “대리”도 확실하게 수행해내고 싶으니까요...!
 붉은 머리의 남성 : 이런, 이런. 어느새 벌써 이렇게 다 컸는지...
 붉은 머리의 남성 : 이젠 “꼬맹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는 걸.
 금발의 소녀 : 아... 에헤헤...
 붉은 머리의 남성 : “녀석들”은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제국정부도, 그 이외 세력도 말야.
 붉은 머리의 남성 : 사고뭉치 황자의 연줄로 원거리통신의 라인도 확보했어.
 붉은 머리의 남성 :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올게. 사양 말고 연락하라고--티타.
 금발의 소녀 : 네...!
 금발의 소녀 : 애거트씨도 몸조심하세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 제도 해임달의 재상 집무실

??? : ---과연. 본교에 이어서 제2분교도 말이군.
 물빛 머리의 여성 장교 : ... 네. 첫날은 아무 일 없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물빛 머리의 여성 장교 : <VII반 전술과>, <IX반 주계과>와 더불어 <VII반 특무과>도 무사히 발족 되었습니다.
 붉은 머리의 청년 : 이런, 이런. 간신히 호랑이를 철장에 가두었다고 생각했더니...
 붉은 머리의 청년 : 설마 “녀석”까지 교관에 포함이 될 줄이야.
 금발의 청년 : 후후, 그 고명(高名)한 재녀(才女)까지 들어가 있고, 버리는 말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교관진이군.
 금발의 청년 : 크로스벨에서 “그”까지 파견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나?
 붉은 머리의 청년 : 하, 잘도 그런 소릴. 완전히 노렸던 주제에.
 붉은 머리의 청년 : 뭐, 전력이 충실하면 그건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지만 말야.

물빛 머리의 여성장교 : 렉터씨, 총독각하도...

낮게 울리는 목소리 : ---어찌됐든 이번 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될 거다.

흑발의 남성 : 노잔브리아를 함락시킨 것으로 뱀들이 숨어들 가시덤불은 전부 불태워버렸다.

흑발의 남성 : 주인의 "계획"을 되찾기 위해서 슬슬 본격적으로 움직일 테지.

흑발의 남성 : 그렇다면, 날개와 검을 빼앗긴 황자의 마지막 발악인 "제2분교"---



흑발의 남성 : 내 못난 아들놈을 포함해서 이용해보도록 할까.

물빛 머리의 여성장교 : 각하...

붉은 머리의 청년 : 나 참... 정말, 악취미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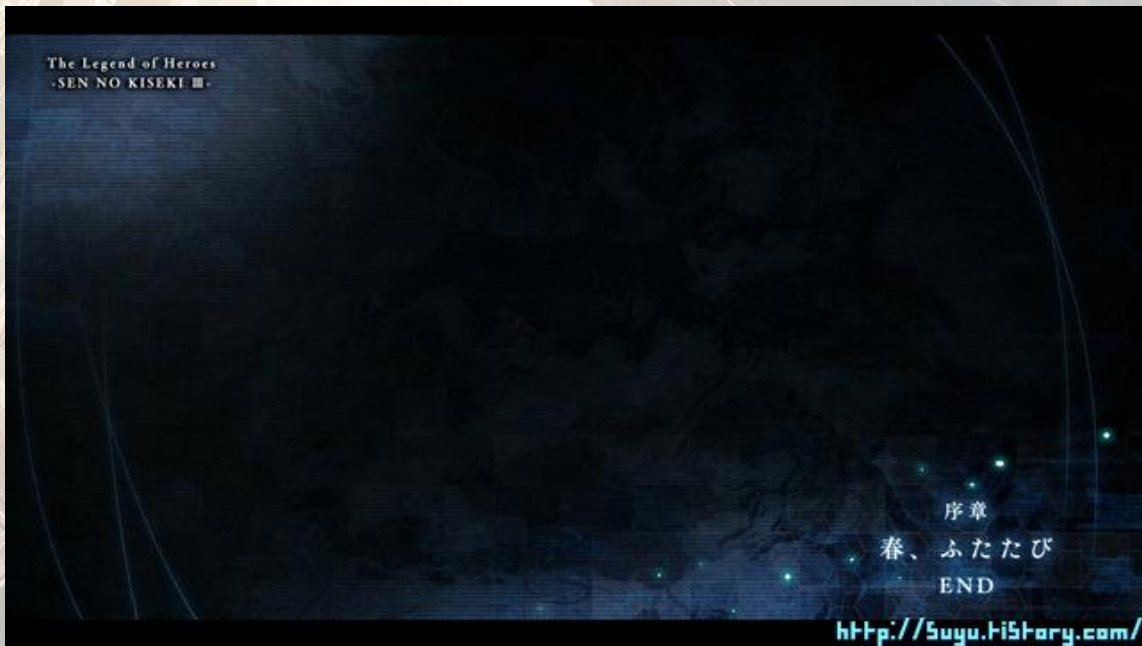
금발의 청년 : 우리들 <철혈의 아이들>은 --- 각하의 큰 뜻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틀즈 사관 학원 제2분교 - 린의 방



??? : 좋아 ---연결됐다.
??? : 와아... 해냈다!
??? : 후후, 설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줄은.
??? : 응, 황자 전하께 감사를 해도 모자를 정도야.
??? : 린과... 가이우스는 연락이 되지 않나.
??? : 으음-- 거리적인 문제거나 받기 어려운 장소에 있는 거 아냐?
??? : 훗, 뭐 이후엔 얼마든지 기회가 생길 테지.
??? : 그러네... 이걸로 마침내 "약속"도 완수할 수가 있을 테니.
??? : 나 참... 기쁜 듯한 목소리네.
??? : 후후, 어쩔 수 없죠. 재회의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 : 응--- 봄은 또 다시네.

- 트로피 봄은 또 다시(春、ふたたび)를 입수 -



- 서장 봄은 또 다시 END -